

# 하도, 답답해서

**요즘**, 시중에는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언 유언비어가 서민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를 통쾌하게 웃긴 최불암 시리즈 한 토막.

시장개방 압력이 우리의 주식인 쌀에 까지 이르고, 경제문제가 최악으로 심각해지자, 비상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모 장관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차라리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과 같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합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테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질 것이 뻔한데, 전쟁에 지면 원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국무총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리가 미국에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답답해, 아무 계획 없이 이틀동안 계속 기차만 타고 있었다. 기차 속에서 날이 저물고, 날이 새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할 수 있는가?) 환경보호 그 밑 빠진 항아리에 물 길어다 붓기를 언제 까지 할 것인가?(할 수 있는가?) 그 환경보호 작업은 가치있는 것인가?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을 쓸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나는 어찌자고 이려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기차를 내리고 또 기차를 타고 그렇게 이틀 낮, 사흘 밤을 기차

속에서 지냈다.

소지품이라고는 이의용씨가 정리한 책 한권뿐으로,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읽고 생각한 것들을 최불암 시리즈가 아닌 박창근 헛소리로 그러나 진정한 시끄러운 소리로 정리한다.

시장개방 압력은 우리가 자청한 화(禍)였다.

한 병아리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한 첫날이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현관쪽으로 오는게 보였다.

“손님이 오느구나. 첫 손님이니 내가 꼭 사건을 맡아야지.”

손님이 현관문을 노크하자 변호사는 “들어 오세요”라는 대답과 함께, 전화 수화기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감을 맡고 있는지를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손님이 안으로 들어서자,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통 정신이 없습니다. 개업한 지 이틀 밖에 안되었는데, 굶직굶직한 사건을 여섯건이나 의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의뢰하신 사건은 소개하신 분의 간곡한 부탁이니, 맡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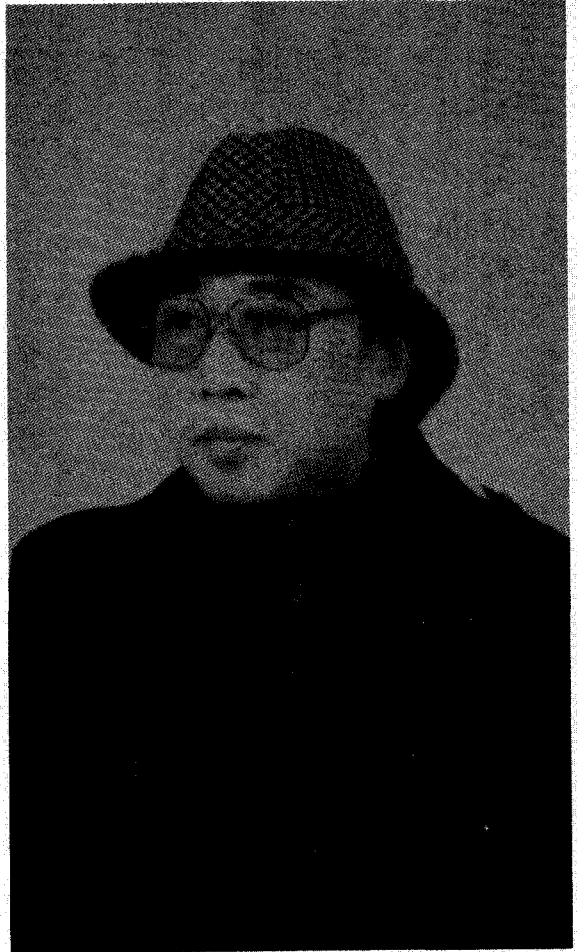
그럼, 다른 손님이 오셔서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 놓으면서 변호사는 손님을 향해 짧 짧게 물었다.

“손님은 어떤 사건때문에 오셨죠?”

그러나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 하는 말



가 이렇게 말했다.

“저…… 사실은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전화선을 이어드리려구요.”

전공은 그 변호사가 붙들고 지결였던 전화기의 선을 찾아 잇기 시작했다.

삼폐인 마개를 너무 일찍 열었다는 눈총은, 눈총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현실로 우리의 생활을 목조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분에 넘치는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호들갑을 떨어, 걱정이 앞섰는데……

호화 관광여행이다. 과소비다. 하여 사람들의 씹씹이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것은 나라가 백성에게 부추킨 결과로 나라의 정책이 앞서의 변호사와 같이 허세가 너무 심했던 결과다.

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마을에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날 강독을 거닐다가, 한 어린 아이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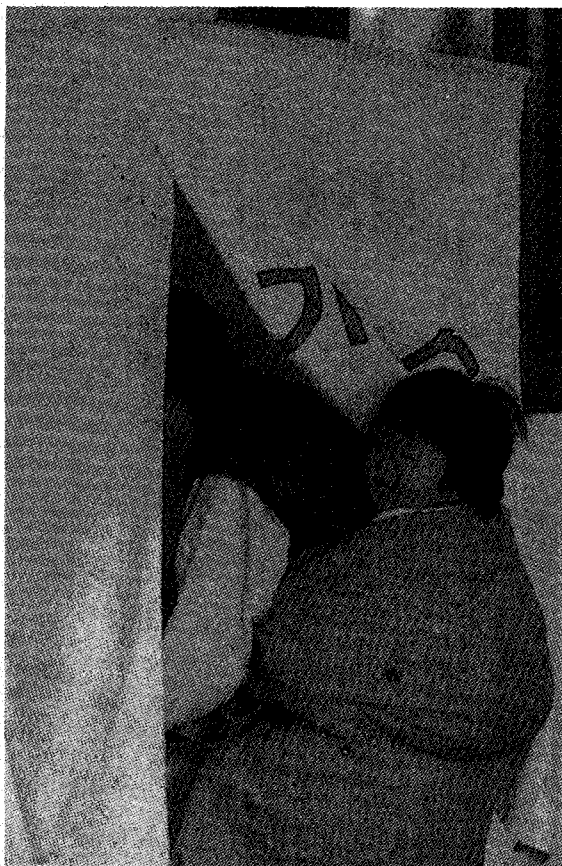
그 광경을 바라본 말 많은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 물속의 어린아이에게 말했다.

“야! 이 녀석아! 해엄도 못치는 녀석이 거긴 왜 들어갔니?”

“아저씨, 저 좀 살려 주세요.”

“이 녀석아, 아무리 잔소리가 듣기 싫다 해도 어른의 충고는 들어야지 다음 부터는 해엄을 칠 줄 모르거든 물가에 나오지 말란 말이야, 알겠느냐?”

정부에서는 주민이 자청하는 지역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100% 주민 찬성의 핵폐기물 저장소 희망지가 있을 것인가? 대체에너지라면 원자력 밖에 생각하지 못했던(못하는) 정부도 한심하고, 그나마도 없으면 당장 생활을 위협받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주민들도 답답하니, 앞 날이 캄캄할 뿐이다.



“아저씨, 나 죽어요……”  
 “알았다. 사람들을 불러 오지!”  
 결국, 어린 아이는 죽고 말았다.

'92년도에 제기될 환경문제 중에서 제일 크고, 심각하게 폭발 할 환경문제는 “핵공해”라고 불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민이 자청하는 지역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100% 주민 찬성의 핵폐기물 저장소 희망지가 있을 것인가?

대체에너지라면 원자력 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못하는) 정부도 한심하고, 그나마도 없으면 당장 생활을 위협받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주민들도 답답하니, 앞 날이 캄캄할 뿐이다.

선거의 해에, 너도나도 정계입신을 꿈꾸고 있는데……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22세에 사업에 실패했다.  
 23세엔 주 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24세에는 사업에 또 실패했다.  
 25세에 주 의회 의원에 당선됐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27세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29세에는 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31세엔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다.  
 34세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저 낙선했다.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세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낙선하고 말았다.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49세엔 상원의원에도 낙선하고 말았다.  
 그러나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다.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백성이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정치보다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던 미국시민권의 교포가 생각난다. 하물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백성에 있어서라?

선거를 네번씩이나 치뤄야 되는 올해의 선거가 자칫 나라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것 같아, 지난 번 칼럼에서 선거를 연기하자고 주장 했었는데, 우연히도 대통령의 생각도 같아 몇개의 선거는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이라고 누군가 외치고 있고, 네번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분분한 속에서, 모 재벌의 총수와 대학의 모 인기교수가 정당을 만들어 이제 바야흐로, 정치 전국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재수 좋게 당선된 사람은 신날테고, 운 나쁘게 낙선한 사람은 거덜이 날, 총선의 해, 당선도 낙

선도 그 순간 뿐이지 영원히 신나거나 우울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환경대책 체념하는 것인가?

코끼리의 힘은 대단하다. 특히 긴 코와 발의 힘은 위협적이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인해, 코끼리의 힘이 작은 작대기에도 굴복하는 수가 있다.

우선, 코끼리가 잘 다니는 길목에 큰 우리와 같은 덩을 친다. 코끼리가 잘못하여 그 우리로 들어가면 입구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코끼리의 발에다 튼튼한 쇠사슬을 매어 튼튼하고 큰 나무에 묶어 둔다. 그리고는 우리를 치운다.

코끼리는 발에 묶인 쇠사슬을 끊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쏟는다.

그렇지만, 제 힘으로는 쇠사슬도 끊을 수 없고 커다란 나무의 뿌리도 뽑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후 부터는 사람들이 끈으로 코끼리의 발목을 감아 약한 기둥에 묶어 두어도 코끼리는 힘 쓰기를 포기해 버린다.

새해부터 많은 환경대책이 중앙 환경처에서 지방의 각관서로 이양, 이전된다고 한다.

구실이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남에게 떠맡기는 것 같고, 생색 안나는 일 포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어쩌면, 코끼리의 쇠사슬과 같이 환경문제와 씨름하다 지쳐 포기하는 것은 아닐런지?

환경처여! 힘을 내라, 지금 그대의 발목에 감긴 것은 쇠사슬이 아니고 끈이며 그 끈은 가느다란 나무 기둥에 묶여있을 뿐이다.

설마가 오늘을 잡았다. 그리고 설마 하다가 내일을 잡는다!

이제 까지 볼 수 없었던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건조되어, 대서양 처녀 항해를 하고 있었다.

출항한 지 3일이 되던 날, 항로에 빙산이 있는 것 같다는 신호가 여객선의 무전실로 타전되어 왔다. 무전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똑같은 신호가 다른 배로 부터 또 타전되어 왔다. 무전사는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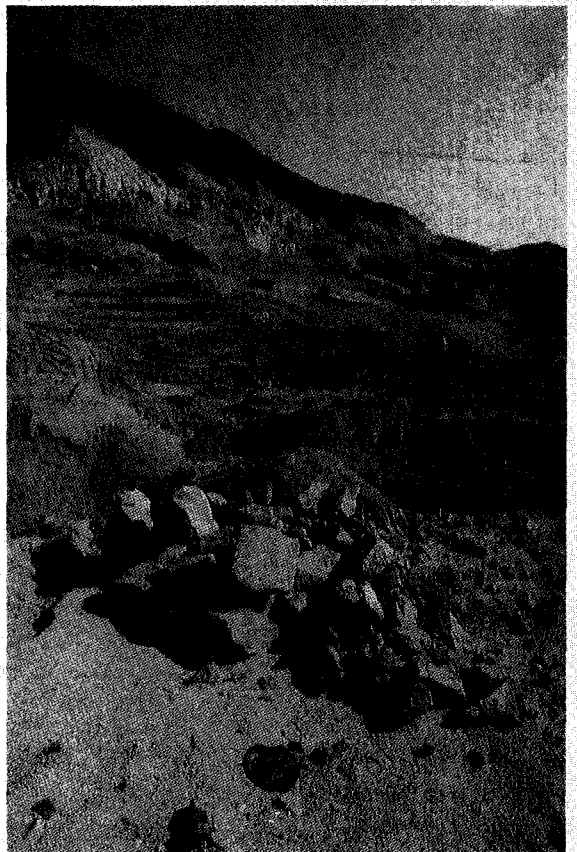
세번째로 같은 신호가 들어오자 무전사는 마지 못해, 항해사에게 보고하고, 항해사는 선장에게 보고했다. 선장은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책임자는 그걸 휴지통에 넣고 말았다.

네번째 경고신호가 들어오자 선장은 빙산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다섯번째 경고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나 빙산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배는 속도를 낮추지 않고 계속 전속력으로 달렸다.



과소비는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연탄 한장, 버스 토큰 한개에도 벌벌 떠는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그것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골프를,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국정을 논의한답시고 골프장을 누비는 꼴과 같이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2시간 후 다른 배로부터 신호가 왔다. "빙산을 조심하라!"는 절규였다. 배의 부서지는 소리가 무선을 타고 들려왔다. 그로부터 10분 후 "빙산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너무 늦어 배는 거대한 빙산과 부딪치고 말았다. 그리고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다. "설마"가 1천5백16명을 수장한 것이다. 저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사고 이야기이다.

영국의 런던 스모그 사고는 1952년에 발생했다. 그리고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은 1956년에 일어났다.

6·25한국전쟁은 런던 스모그 사고 2년전인 1950년에 시작되었다. 강산이 폐허로 변해, 자연이 파괴되고 각종 수인성 전염병 등은 수질오염 초기의 예시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이 공해병으로 신음한 것은 절호의 교훈이기도 했는데, <설마>에 안이했던 우리는 지금 타이타닉호와 같은 절대절명의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

아니, 런던 스모그도 일본의 미나마타병도 선진국형의 모델로 여겨 기꺼이 불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수가 없기 때문이다.

\*호화, 사치에 침을 뱉어라!

이집트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선비답지 않게 부귀와 영화를 좋아하던 그가 어느날 이습을 집에 초대했다. 방의 벽과 기둥은 금과 비단으로 감싸고, 대리석

바닥엔 발목이 푹푹 빠지는 융단을 깔아놓고 음식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차려 놓았다.

이습은 집 안팎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는 감탄을 하며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저택은 처음입니다."라고 칭찬을 했다.

바른 말 잘하기로 유명한 이습으로 부터 칭찬을 받자, 학자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흠족해 했다. 바로 그때 이습이 그 학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습은 태연하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을 뱉고 싶은데, 집이 하도 아름답고 깨끗해서 어디 마땅한 자리가 있어야죠."

요즘, 과소비가 문제라고 호들갑이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10% 덜 쓰기란다.

과소비는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연탄 한장, 버스 토큰 한개에도 벌벌 떠는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그것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골프를,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국정을 논의한답시고 골프장을 누비는 꼴과 같이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일부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거의 대다수의 지도층 인사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집 안팎의 치장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자성해 볼 일이다. 그리고 改過遷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筆者: 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